이음, 제주

지역과 사람을 잇다

TRACK.16

Special Theme

도시재생,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도시재생,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도시재생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마을의 정체성'과 '주민'일 것이다. 도시의 특색과 전통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사람, 바로 주민이 있어야 된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리가 이루어져 자생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다.

2019년 제주도시재생센터는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음제주에서는 올 한해 사업에 참여한 주민, 행정기관의 담당자,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원도심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주 도시재생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그려보자.

CONTENTS

다시, 보다

4 **원도심을 지킨 오래된 맛집**

8 **원도심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들**

- 미디어제주 김형훈 편집국장
- 원도심 거주민 한경임
- 김영수도서관 유지 사서

12 **주민이 만드는 도시재생**

- 일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변동호 위원장
- 관덕정주변원도심지역주민협의체 고봉수 대표

14 **퍼실리테이터가 바라 본 제주 도시재생의 가능성**

인피플 컨설팅 홍순표 부사장

다시, 듣다

16 **함께 생각하는 도시재생 협업의 가치를 발견하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김희준 주무관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윤지 과장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경호 팀장

20 **도시재생을 위한 숨 가쁜 일 년을 돌아보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성현 센터장

22 **슬기로운 인턴생활**

- 2019년 LH 도시재생뉴딜 청년 인턴십, 강민주
- 2019년 LH 도시재생뉴딜 청년 인턴십, 임유영
- 2019년 LH 도시재생뉴딜 청년 인턴십, 지혜원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년센터 일성장프로그램, 전재현

발행일 2019년 12월 27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 1, 3층) **발행인** 부성현 **편집인** 이재근
기획·편집·디자인·제작 쥬드(010-2574-9679) **인쇄** 태웅씨엔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 **홈페이지** www.jejuregen.org

〈이음, 제주〉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의 콘텐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食 : 원도심의 오래된 손 잡기

원도심을 지킨 오래된 맛집

긴 시간 동안 원도심을 맛 하나로 지킨 오래된 식당 5곳을 소개한다.

A 단골 취향저격 왕김밥

왕김밥을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단골이다. 매일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씩 늘어난 메뉴다 20개가 넘는다. 맛도 훌륭하다.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은 넉넉한 인심에 마음까지 배부르다. 간단한 식사부터 든든한 한 끼 식사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8길 5 **전화번호** 064-752-0554 **영업시간** 07:00~21:00
대표 메뉴 왕김밥 2,000원, 떡볶이 3,000원, 라면 3,000원, 칼국수 5,500원, 돈까스 6,500원, 돌솥비빔밥 6,500원

B 2대째 내려오는 순두부 맛집 별당별당

시어머니가 하시던 가게를 며느리가 물려받아 2대째 운영하고 있는 순두부 맛집이다. 대표 메뉴인 순두부찌개는 다른 곳과 확실히 차별성이 있다. 바로 비빔밥이다. 순두부찌개를 시키면 비빔밥이 나오는데 야채를 먹기 힘든 손님들을 위한 사장님의 푸짐한 인심이다. 정갈한 밑반찬도 참 맛있다. 얼큰한 순두부찌개와 비빔밥을 함께 먹고 나면 딱 만족스러울 정도로 배가 부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2길 8 **전화번호** 064-757-8980 **영업시간** 10:00~20:00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휴무)
대표 메뉴 소고기 순두부찌개 7,500원, 돼지고기 순두부지개 7,000원, 바지락 순두부찌개 7,000원, 제주고사리 육개장 8,000원

C 정성 가득, 한 상 가득 손씨네식당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 같은 음식이라는 생각나는 손씨네식당.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돌솥비빔밥을 추천한다. 집에서 먹는 듯 양도 푸짐하다. 좀 더 푸짐하게 즐기고 싶다면 불고기, 낙지, 새우가 들어간 갈낙새전골도 즐길 수 있다. 한 그릇 뚝딱 비워내면 마음까지 풍요로운 기분이 든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4길 18 **전화번호** 064-752-8745 **영업시간** 11:00~20:00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넷째 주 일요일)
대표 메뉴 돌솥비빔밥 8,000원, 곱창전골(1인) 12,000원, 갈낙새전골(1인) 10,000원, 불고기전골(1인) 10,000원, 김치전골(1인) 8,000원

D 제주도 부대찌개 원조 맛집 20년 전통 부대찌개

제주도에 부대찌개를 처음 선보인 원조 부대찌개 맛집이다. 지금이야 남녀노소 누구나 부대찌개를 알지만 15년 전만 해도 손님들에게 부대찌개 먹는 방법을 설명해야 할 정도로 제주도에서는 생소한 음식이었다. 제주도에 부대찌개를 전파한 원조집인 만큼 단골도 많다. 최근 이사를 했으며, 한결같은 맛으로 단골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35 **전화번호** 064-759-9972 **영업시간** 12:00~21:00
대표 메뉴 부대찌개 1인분 7,000원, 햄사리 3,000원, 소시지사리 3,000원, 열무냉면 6,500원, 열무국수 6,000원

E 든든한 배를 채우는 국밥 한 그릇 20년 전통 곤지암소머리국밥

20년 전통이라는 말은 그저 간판용이 아니다. 진한 국물이 일품인 국밥 한 그릇이면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큼직큼직한 깍두기와 배추김치 그리고 젓갈의 맛 역시 훌륭하다. 손님의 대부분이 단골이다 보니 내 식구가 먹는 것처럼 항상 정성스럽게 요리를 한다는 사장님. 원도심에서 맛 좋고 인심 좋은 국밥집을 찾는다면 20년 전통 곤지암소머리국밥을 추천한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4길 4 **전화번호** 064-757-6141 **영업시간** 08:00~20:00(매월 첫째 주 화요일, 넷째 주 일요일 휴무)
대표 메뉴 소머리곰탕 8,000원, 도가니탕 10,000원, 우족탕 10,000원, 꼬리곰탕 14,000원

단짠단짠,
노포 사장님 5명이 들려주는 인생의 삼시 세끼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원도심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의식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특히 원도심과 함께 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제주 원도심이 갖는 역사적, 공간적 가치 외에 '인간의 삶'에 주목했다. 프로젝트에는 4개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했으며, 개별 프로젝트 활동과 프로젝트 활동을 담은 아카이빙 전시, 네트워킹데이도 함께 진행했다. 그중 무조리실협동조합원들은 원도심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한 5곳의 노포 여성 사장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5명의 사장님과 나눈 음식과 인생의 희로애락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20년 전통
곤지암소머리국밥

별당별당

20년 전통
부대찌개

왕김밥

손씨네

언제부터 요리를 하기 시작하셨나요?

왕 99년 11월달부터난 해신 몇 년이나 했지? 그전에 일한지는 5년 됐어요.(25년) 곤 북초등학교에서 하다가 여기로 와서…제주도에서 한 20년 했지.(20년) 별 제가 한지 10년, 저희 시어머니랑 5년 같이 하다가 이어 받았죠.(15년) 부 칠성통에서 15년하고..횟수로 17년.(17년) 손 칠성통에서 갈빗집하다가 요 앞에서 한식집을 5년 했었고, 여기서는 11년 했지.(16년 이상)

원도심에서 식당을 시작한 이유가 궁금해요.

왕 원래 주인이 선흘로 이사를 가서 내가 인수했어. 여기서 5년 동안 일을 했거든. 곤 15년 하다보니까 주인이 땅을 팔았어. 여기가 고향 같고 단골 손님도 많아서 멀리 못 가고 근처에 식당을 다시 열었어. 부 제주 오자마자 부대찌개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제주에는 부대찌개가 없어서 어떻게 먹는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한 1년 반 동안 자리 잡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손 남편이 요리사였어. 나도 음식에 소질이 있어서 남의 손 안 빌리고 직접 할 수 있는 음식 장사를 시작한 거지.

힘들진 않으세요.

별 프라이팬 돌리고 계속 저어야 해서 어깨하고 팔이 아파. 직업병이야. 부 40대까지만 해도 날라 다녔는데 갱년기 오면서 우울증 걸린 것처럼 힘들어. 그래도 손님들의 맛있다는 말 한마디에 힘내서 다시 일하는 거야. 손 손님들이 다 먹고 나면 치우는 게 제일 하기 싫어.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별 한 시간 동안 한라수목원을 걸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버틸 수 있으니까. 부 요가를 다니긴 했어요.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일어나요. 그래야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다니까. 손 한 시간씩은 항상 걸어. 한 달에 한 번은 산에도 가. 봄이 되면 고사리 밭에 가는데 일년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야.

집에서도 요리 하나요.

왕 전혀. 집에 가면 그냥 잠만 자. 부 집에선 요리를 거의 안 해. 여기서 거의 다 해먹어. 별 쉬는 날은 간단하게 해서 먹는 편이야. 손 남편이 식당 음식은 안 먹어. 국도 매일 끓여 줘야 해.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왕 내가 한 음식 말고 남이 한 음식은 아무거나 다 좋아. 부 남이 해주는 밥은 무조건 맛있어. 안 힘드니까. (웃음)

요리노동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

왕 그냥 하는 거지. 손님하고 약속이니 문을 닫을 수 없는 거야. 곤 맨날 하기 싫어. 고되고 힘든데 하고 싶겠어.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지. 부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생겨서 하는 거야.

동료와는 어떻게 지내나요?

왕 친구처럼 지내. 직원들이랑 같이 일 한지 20년이 넘어서 너무 잘 알아. 별 언니하고 동생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성격을 다 알아서 힘들면 다들 눈치껏 맞춰줘. 손 싸우지는 못해. 싸우면 식당에서 기분 좋을 수 없잖아.

원도심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왕 제주대학병원이 이전하고 난 뒤에는 손님이 줄었는데 장사에는 크게 지장은 없어. 우리는 관광 손님 위주가 아니라 단골 손님 위주라서. 곤 (지역에서 하는 작은 축제나 행사 등은) 별 영향이 없어. 별 제주대학병원 있을 때는 많이 활성화 됐지. 제주대학병원이 이전하면서 주변 상가들이 많이 없어졌어. 부 칠성통에서 오래 장사를 할 줄 알았는데 제주도 붐이 일어나서 주인이 건물을 팔아 버렸어.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나가래. 그래서 나도 건물을 사서 장사를 하려고 알아 봤는데 20억은 있어야 맘에 드는 곳을 살 수 있는 거야. 너무 늦은 거지. 그래서 외진 이곳까지 오게 된 거야. 손 제주도 사람들은 오로지 먹고 실기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런데 삼도2동 문화거리 만들면서 집세만 올라 갔어. 앞으로 손님 많아진다고.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왕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 편하게 지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 곤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별 우리 작은애가 대학교 입학하면 일 그만 할거야. 올해 애들이랑 계획을 세웠어. 장사 그만 두면 가족끼리 여행 가기로. 손 아들 자리잡을 때까지는 해야지. 부 아들이 일을 배우고 있어서 한 5년정도 더 하려고 했는데 10년은 해야 될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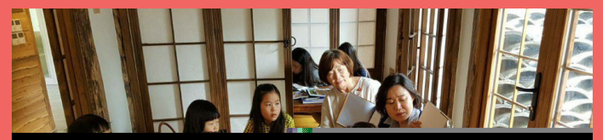
후배 요리노동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별 3년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단골이 생겨. 손 장사를 할거면 3년은 견뎌야 해. 주방에서는 긴장하면 안 돼.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의식주 프로젝트를 추진한 무조리실 협동조합은?

다양한 여성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요리와 예술을 접목한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삼도2동에서 무조리실 협동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굳어져온 여성의 손노동에 부여된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회인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 본 콘텐츠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의식주 프로젝트〉 중 무조리실협동조합에서 진행한 '원도심 오랜 손 잡기' 프로그램의 콘텐츠 중 일부를 가공하여 만들었습니다.



원도심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들

누군가는 원도심을 이럴 적 뛰어놀던 추억이 서려있는 동심의 놀이터로 기억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켜내야 할 건축물들이 있는 역사적 장소로 바라본다.
원도심이 고향인 한경임 씨,
글을 통해 원도심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미디어제주의 김형훈 편집국장,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김영수도서관 유진 사서,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원도심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사람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재생을 생각하다

미디어제주 김형훈 편집국장

시민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고씨주택

제주시 원도심에는 시민들이 지켜낸 건축물이 두 가지 있다. 고씨주택과 그 옆에 있는 산지천 갤러리다. 2014년 탐라문화 광장을 조성한다며 500억원을 투입해 이 일대의 모든 건축물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때 '미디어제주' 김형훈 편집국장은 한 통의 제보를 받았다. 고씨주택이 허물어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시민의 제보였다. 실제 방문해서 보니 고씨주택은 제주 전통건축 양식과 일본풍이 융합된 일제강점기 중반에 지어진 가옥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축물이었다. 그때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고씨주택 보존 운동을 진행했다. 〈미디어제주〉에 고씨주택을 살리기 위한 연속보도를 내고 도청에 진정서도 넣었다. 그 결과 고씨주택은 제주 사람들이 오가는 사랑방이자 동네책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현재 제주를 콘텐츠로 한 도서를 볼 수 있는 책방과 시민과 여행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민의 삶을 생각하는 도시재생

그는 도시재생의 진정한 의미는 "관광객이 아닌 주민의 삶을 우선으로 높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을 관광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 관광객 중심이 아닌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주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재생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의 주인이 자신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고 싶다고 한다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건물의 가치를 설명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원도심의 가치 있는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있다. 부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존하는 것의 가치를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원도심의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전수조사를 통해 찾아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런 다음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건물주에게 설명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면 소중한 건축물도, 주민의 삶도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김형훈
오랜 신문 기자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는 미디어제주의 편집국장. 저서로는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가 있다.

나의 원도심은 다양한 기억이 공존하는 또 다른 '집'이다

원도심 거주민 한경임

추억이 방울 방울

누구나 어릴 적 기억은 꿈속 같이 아련하고 따스하게 느껴진다. 한경임씨에게 원도심은 옛 추억이 몽개몽개 생각나는 특별한 장소다. 그녀는 7살부터 12살까지 건입동 1189번지에 살았다. 그 당시 폐가처럼 남아 있던 제주 최초의 화력발전소 건물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놀기 최적의 장소로 유령이라도 나올 것처럼 무서웠지만 스릴 만점 아지트였다. 여름이면 그녀는 도심 속 유일한 피서지였던 '금산수원지'의 샘물터에서 물장구를 치고 놀았다고 한다. 산지천에서 어른들이 빨래를 하면 그 옆에 있던 매립 전 탑동 바다에서 밀물일 때는 수영을 하고 썰물일 때는 보말과 작은 깅이를 잡으며 무덥고 길었던 여름을 보냈다고 말하는 그녀다. 또한, 영화 티켓을 살 수 있는 돈만 생기면 '동양극장', '제일극장', '코리아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봤던 할리우드 키드였다. 이처럼, 그녀의 어린 시절 추억의 8할은 원도심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잠시 제주를 떠나 있었다. 다시 돌아온 제주에서 그녀는 낯선 이방인인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사인자 서점'을 찾아 위로를 받았다. 1999년 사랑했던 아이들과 연극 작업을 할 때 무대 작업실로 사용했던 옛 감협 건물은 그 당시 밤낮을 잊게 했던 그녀의 열정이 서려있는 장소다.

그녀는 원도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단지 어린 시절 추억 때문만은 아니다. 원도심이 품고 있는 역사적 가치 때문이다. 원도심 안에는 '장소의 역사성'을 품고 있는 곳들이 많다. 제주 최초의 극장이었던 '현대극장'이나 '제주시청사' 같은 건물들은 행정도 행정의 감독기관도 그 가치를 몰라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그녀는 매우 안타까워했다.

시민으로서 도시재생에 참여하다

그녀가 원도심의 가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년도 넘은 작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부터다. 처음에는 전부 부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래된 공간의 매력에 빠져 처음 계획과 달리 시간과 공을 들여 하나씩 바꿔나갔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재미있는 공간으로 바뀐 모습은 마치 죽어가던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한다. 직접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술적인 한계를 느끼고,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도민디자인교실'을 시작으로 올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민디자인교실', '기초탄탄 빌더 양성 교육 1탄'으로 이어지는 긴 호흡으로 확장해나가는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원도심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기초탄탄 빌더 양성 교육 1탄'은 지역사회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여서 보람이 매우 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토박이로 원도심의 미래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주의 옛 지명인 탐라의 한자어는 즐길 탐(耽), 펼칠 라(羅)로 즐거움이 펼쳐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문화를 매개로 한 1년 365일 소소한 즐거움이 펼쳐져 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도심의 잊혀진 공간 위에 새로운 시간이 덧씌워져 희망의 원도심으로 태어나길 기대해본다.

한경임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제주도민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센터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지금도 원도심의 가치 있는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있다.
부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존하는 것의
가치를 알리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아이들,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김영수도서관

김영수도서관 유진 사서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은 신이 보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그 선물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전폭적인 도움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제주북초등학교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재개관한 김영수도서관은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영수도서관에서 도서 관리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진 사서를 만나 마을도서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개관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김영수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선진사례가 돼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김영수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유진 사서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마을도서관이 생기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몇 사람이 투입된다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영수도서관은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활동가 선생님, 자원봉사자 분들, 제주대학교 학생 봉사자 등 선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주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수도서관은 제주북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이자 제주시 원도심의 마을도서관으로 운영 · 관리상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아이들의 쉼터

김영수도서관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했다. 많은 분들을 만난 만큼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다고 그녀는 말했다.

"매일 오후 5시 30분이면 도서관으로 아이를 데리러 오는 아버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시간이 늦을까 헐레벌떡 오시더니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 30분, 1시간 정도 늦게 오시더라고요. 아마도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김영수도서관이 안전한 아이들의 쉼터가 되어 주고 있는 것 같아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고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김영수도서관에서는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책과 관련된 교구들을 보자기에 싸서 어디서든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책보따리 프로그램을 주말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3일 동안 김영수도서관에 와서 스스로 마음먹은 시간 동안 책을 읽는 프로그램인 작심삼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 못 가는 아이들과 맞벌이 부부 아이들이 방과 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영수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 주민 모두 주저하지 말고 운영에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란다.

유진
김영수도서관에서 전문사서로 활동하고 있다. 도서 선정 및 이용자 분석, 도서관 이용 프로그램 등 활동가 선생님,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김영수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다방면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이 만드는 도시재생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이 주인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덕정주변원도심지역주민협의체 고봉수 대표와
일도일동 변동호 주민자치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통해 원도심이 만들어 가야 할 도시재생을 만나보자.

아무리 좋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도시재생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이해와 협의 없이 행정기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한 사업은
지속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과 정책은
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민을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는 관덕정주변원도심지역주민협의체 고봉수 대표와
일도일동 변동호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 주민이 원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걷고 싶은 원도심을 꿈꾸다

일도일동 주민자치위원회 변동호 위원장

제주시 원도심에서 얼마나 거주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40년 넘게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칠성로의 변화를 몸소 체험한 토박이다. 현재는 일도일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다. 어떤 사업 및 프로그램에 참여했나? 탐라문화광장 주변 공간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디자인씽킹 워크숍과 고씨주택 돌담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민참여 디자인씽킹 워크숍에서 저희 팀은 시계조형물을 건의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칠성로가 제주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밝은 미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시계조형물을 제안했는데 채택이 되어 팀원 모두 보람을 느꼈던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고씨주택 돌담 개선 프로젝트의 경우 작은 골목의 올레를 상징하는 제주 돌담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값지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더 추진되었으면 좋겠나? 칠성로는 예로부터 사람들의 길이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쇼핑이나 소비를 향유하는 곳으로만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곳만의 정서를 담아 걷고 싶은 길,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길 등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일환으로 새로 생긴 북수구, 산지천 공원과 함께 도심 곳곳에 도심 녹화 사업을 통해 녹색 도시를 조성한다면 더 걷고 싶어 지는 거리가 될 것 같다. 층이 비슷한 건물들은 옥상들을 연결하여 옥상 정원을 꾸민다면 탑동의 해안 절경과 한라산의 절경이 만나는 환상적인 뷰를 지닌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 같다.

원도심 토박이로서 바라는 원도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원도심은 도시 정비화 사업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대형 공공기관과 병원, 교육기관 등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거주인구가 줄어들고 예전의 활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원도심은 우리들에게 오랜 시간 함께 한 친구이자 선물 같은 공간이다. 원도심이 활력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원도심안에서 그들의 삶을 찾게 해 주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면 원도심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도심이 품고 있는 시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도민과 여행객 모두가 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해갔으면 좋겠다.

변동호
원도심에서 40년 넘게 생활한 제주 토박이다. 현재 일도일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 원도심 주민자치와 복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센터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원도심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 문화재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길

관덕정주변원도심지역주민협의체 고봉수 대표

2019년 관덕정주변원도심지역주민협의체 대표로 활동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관덕정 주변 차 없는 거리 반대운동'으로 주민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민협의체의 필요성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들이 느끼게 되었고,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과거에는 관덕정 옆에 분수대가 있어 로터리 역할을 했다. 그런데 탐라문화광장이 조성되면서 유턴 구간이 없어졌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유턴 구간 설정을 몇 년에 걸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관덕정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면서 1년 가까이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덕로 북측 주민들의 숙원인 유턴 구간을 설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와 주민간의 가교 역할이 쉽지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원도심의 상인들은 대부분 1인 자영업자여서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다. 직원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대부분이 혼자 장사를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힘든 점이 있다.

원도심은 어떤 가치(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원도심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다. 근대 교육의 최초, 천주교 최초 등 역사적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지어진 관덕정,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적산가옥, 현대 지어진 건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유일한 곳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한다. 원도심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곳이다.

2020년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토목공사 같은 물리적 투자가 아닌 문화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관덕정은 보물로 24시간 개방하고 있어 아무나 들어가서 본다. 반면 목관아는 사적이긴 하지만 복제품인데 아무나 들어가질 못한다. 야간 개장이나 포토존 설치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원도심에는 수많은 문화 유적들이 많다. 땅을 파면 유적이 나올 확률이 100% 일정도다. 이런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생사업은 도청의 어느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협력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도시재생 사업은 부서가 아닌 지역으로 나눠 TF팀을 구성하고 각 부서별 팀원들이 합류해 일을 한다면 지금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고봉수
2013년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와 우연히 원도심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 이후 고향인 제주도와 원도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현재 이엠피파트너즈 대표이자 관덕정주변원도심주역주민협의체 대표로 활동하며 주민이 살기 좋은 원도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퍼실리테이터가 바라 본 제주 도시재생의 가능성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진행했다. 두 번의 워크숍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인피플 컨설팅 홍순표 부사장을 만나 제주도 도시재생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퍼실리테이터, 주민과의 소통 촉진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들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수많은 워크숍과 주민회의, 자치, 협치 분야의 회의가 자주 열린다.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된 수많은 회의는 피곤하고 쉽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 생각을 나눌 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는 곧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효율적으로 의미 없이 흘러가는 회의에 반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다. 퍼실리테이터란 회의나 워크숍 등에서 소통 전문가로 진행을 촉진시키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퍼실리테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눈 것을 도와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답을 찾아 주는 사람은 아니다. 참여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가 바라본 제주도의 가능성과 아쉬움

2019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퍼실리테이터와 두 번의 워크숍을 진행했다. 탐라문화광장 주민참여 디자인씽킹 워크숍과 디자인공장 워크숍이다. 두 번의 워크숍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인피플 컨설팅 홍순표 부사장은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 달리 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제주도의 미래 성장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반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갈등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주 도시재생사업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홍 부사장은 제주도의 도시재생 사업만이 갖는 특별함이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것은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해서 제주 지역의 원도심(구도심)과 신도심의 도시 활력 차이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도심의 도시 활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은 육지와 다른 제주도만의 특별함을 보고 싶어 한다. 육지와 차별화된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제주도만의 특별함은 이미 원도심에 내재되어 있다. 그 특별함에 활력을 준다면, 제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의 워크숍에 진행자로 참여하면서 노령의 참석자들이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 인터뷰를 하고, 새로운 퍼실리테이션 방법에 대해 감탄하면서 결과물을 직접 사진까지 찍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에게 센터, 주민, 수요자 각자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줄이고, 해소할 수 있을지 등 퍼실리테이션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진다면 좋겠다며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워크숍 결과물에 대한 Follow-up도 아쉬움으로 남아요. 워크숍 참석자들과 결과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참가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요. 워크숍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음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다른 재생사업 관련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디자인공장의 성장 가능성

가장 최근 진행했던 디자인공장 워크숍에 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디자인공장의 멤버들이 디자인공장의 영역을 제주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은 향후 디자인공장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디자인공장은 아직 설립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그 성장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자인공장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이해관계자들은 디자인공장이 성과를 내기까지 소요되는 많은 시간들을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디자인공장 멤버들도 끊임없이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토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멤버들이 입주하게 될 경우에 디자인공장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고, 함께 하면서 멤버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도심과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언

홍 부사장은 제주도민으로서 원도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도민들이 희망하는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의 미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해서 공유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런 과정들이 명확한 채널을 통해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 수요자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만 도시재생사업을 이해할 것이고 갈등마저 커질 수 있다며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홍순표
퍼실리테이션 전문기업 인피플 컨설팅의 부사장. 대신증권, BS 투자증권 등에서 15년 넘게 증권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다. 애널리스트에서 퍼실리테이터로 파격적인 변신을 한 이유는 세상의 변화 이면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답을 찾는 일에 대한 오랜 관심 때문이다. 뛰어난 통찰력과 창의성으로 퍼실리테이션을 디자인하며, 특유의 곰곰한 진행으로 명쾌한 결론을 이끌어 낸다.

함께 생각하는 도시재생 협업의 가치를 발견하다

제주도시재생센터는 올 한 해 제주도청,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 곳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처 간 칸막이와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인식으로 협업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제주도시재생센터의 협업은 도전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업을 함께 진행한 기관별 담당자의 목소리를 통해 제주도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만나보자.

Jeju

센터의 시범적인 사업 경험이 제주도의 도시재생 경험으로 축적되고 쌓이길

제주특별자치도청 김희준 주무관

김희준
23년간 제주도청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주도의 변화를 몸으로 직접 느꼈다. 2016년 도시재생 업무에 참여하면서 제주의 새로운 가능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직생활을 언제 시작했으며, 어떤 업무들을 했나? 1997년 12월 제주 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23년간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 업무는 도로기반시설 유지 인허가 관련 업무, 주민참여예산 사업집행, 공영주차장 시설 및 기반조성 업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하수관로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재생 업무를 하면서 기존 업무와 달랐던 점은 무엇이 있나? 2016년 도시재생 업무를 처음 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우선 주민들의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기존 사업들과는 전혀 달랐다. 주민들 또한 관주도의 개발사업 추진방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에 실질적인 참여 역량이 당시에는 많이 부족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도시재생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상황이었다. 가장 먼저 주민과 행정의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작했다.

제주의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추진사업에는 무엇이 있나? 제주의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 정부 들어서 2017년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인 제주시 신산머루와 서귀포시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 뉴딜사업으로는 제주시 남성마을과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9년에는 제주시 건입동 지역에 대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

가정 먼저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관덕정광장 주변 지역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상생마당, 교육환경개선사업, 기상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사업(W360) 등의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은 학교도서관과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올해 재개관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영수도서관 재개관 사업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각한 상황도 있었다. 김영수도서관 재개관을 위해 기본구상부터 건축시공 감리, 운영방안 마련까지 같이 참여해온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애를 태웠던 기억이 새롭다.

센터와 협업을 진행하면서 장단점은 무엇인가? 센터와의 협업에 단점은 없는 것 같고 장점을 말하자면 너무 많아 다 말하기 힘들다.(웃음) 행정은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다. 절차도 까다롭고 무엇 하나 시작하려고 하면 보고서도 쉼 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소요되는 시간 또한 아주 길다. 그에 반해 센터는 의사결정구조가 단순하고 그 시간도 굉장히 빠르다. 최고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은 답습과 사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모험적인 시도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직 걸음마 단계를 밟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모든 사업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도로 모험적이고 시험적인 일들이 많다. 센터의 시범적인 사업 경험이 제주도의 도시재생 경험으로 축적되어 쌓이고 있다. 센터가 없으면 하지 못할 일들이 많다.

행정 담당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연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같이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제주의 시민사회와 여러 전문가 집단, 중간 지원조직과 행정이 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추구할 가치를 함께 설정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아닐까.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JEJU SOCIAL ECONOMY CENTER

협업과 소통이 만들어 낸 값진 결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윤지 과장

김윤지
제주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도시재생센터와 협업을 통해 〈원도심 의식주 프로젝트〉를 진행,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 가치로 확장하는 결과를 얻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협업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해달라. 이번에 진행한 원도심 의식주 프로젝트 '삶이 앙앙작작, 사람이 복작복작'은 제주에 원도심을 무대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동체 중에서 지역 가치를 문화 또는 예술적 콘텐츠로 재해석하는 의식주 주제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주민공동체와의 협업 프로젝트로 기획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무조리실협동조합, 숨워드로브, 제주착한여행)과 주민공동체 조직(베지근연구소)이 각자 원도심과 교류하며 생산한 콘텐츠 아카이빙 작업을 전시하고 지역의 사람들에게 확산하는 네트워킹 파티로 진행했다.

두 센터가 협업으로 진행한 이유가 궁금하다. 협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나? 감사하게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배정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사용을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협업을 제안해 주셨다. 중간지원 기능의 두 센터가 협업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당사자 조직체가 함께 기획에 참여하여 함께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본격적 이야기가 나온 7월부터 10월 행사까지 센터와 참여 조직체가 서로를 알아가는 동시에 손발을 맞춰가며 여러 단위로 회의와 소통을 거듭하며 기획을 함께 만들고 실행했다. 전시를 관람하고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한 주민 또는 관람자 분들은 "이번 기회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에 관해 알게 되었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단순히 사회적경제 기업명이나 매장 또는 상품을 알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지역의 기존 상권과 교류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 가치로 확장해 존재를 인식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기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업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무자인 신지영 팀장과 김은희 연구원,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이경희 선생님과 저까지 네 명이 행사 전날, 제주책방에서 전시 설치를 지원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늦은 밤 고택에서 하는 색다른 경험이 재미있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지영 팀장, 김은희 연구원은 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창문에 작품을 설치하며 유리에 시트지 붙이는 고급 기술을 전수해 주셨다.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며 배울게 많았던 멋진 파트너였다.

앞으로 어떤 협업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나?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상호 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아직 내년도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올해의 협업 시도가 향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험과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 간 협업할 수 있는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기업의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한다면 결과물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한다.

Jeju Center
for Creative Economy&Innovation

제주 원도심의 가치와 창업자를 위한 두 기관의 노력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경호 팀장

이경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청년계층의 취업과 창업을 연결해 지역혁신을 통한 제주의 성장과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는 리노베이션 스쿨,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업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해달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총 8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제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활발한 도시재생을 위해 스타트업과 연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고민을 시작으로 리노베이션 스쿨,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사업 등 공동사업을 추진했다.

두 센터가 협업으로 진행한 이유가 궁금하다. 협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나? 두 센터는 각각의 장점들이 있다. 특히 창경센터는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투자 육성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습득한 노하우가 있고, 재생센터는 제주 원도심의 공간 정보와 이를 연계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도시재생의 다양한 수단으로 해결하는 노하우가 있다. 제주 원도심의 가치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자의 결합을 두 기관이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도한다면 원도심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협업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각 기관별로 공통의 아젠다를 도출하는 사전 기획단계가 그래서 중요하다. 창경센터는 도시재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제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원도심 도시재생 리서치 및 과제개발'을 시작으로 TF팀을 재생센터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일본의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함께 다녀온 후 리노베이션 스쿨을 공동 기획했고, 일본 파트너(일본 리노베링)와 MOU를 체결하여 오리지널 버전으로 진행한 결과, 베드라디오라는 호스텔 창업팀을 발굴했다. 여기서 약 1억 원의 기초공사비를 재생센터에서 지원했으며, 창경센터는 사업화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키는 창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성과도 도출했다. 결국 각 기관이 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성은 부처가 다르고, 지원사업 형태가 다르더라도 스타트업이 원도심에 입주하여 지역민과 결합된 다양한 활동들을 두 기관이 합심해서 지원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은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협업 시도 자체가 당연하며, 시너지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를 두 센터가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성과가 있다면? 주요 성과는 과거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자원이 비즈니스로 발견되고 지역민과 협업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에 얼마큼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참가자들이 배운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투자하여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회에 걸친 리노베이션 스쿨을 통해 총 8건의 유휴공간 사업화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다. 제주원도심 호스텔 베드라디오와 산지천 일대를 대상으로 한 산지놀지 프로그램 발굴 등 총 8차례 이상 자발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협업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나? 우선 제3회 리노베이션 스쿨을 함께 기획하고 있다. 특히 작년과 올해 리노베이션 스쿨의 다른 버전을 고민하고 있으며, 실제 제주 원도심 유휴공간에 지역 가치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청년 창업가와 전문가들을 유입하는 성공사례를 만들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단순히 창경센터만 잘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재생센터와 함께 지역의 문제정의와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주원도심이 창업거점으로 바뀔 수 있는 시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W3600이라는 창업거점 공간을 올해 11월 오픈하였는데, 지역주민과 스타트업이 공존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 협의해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주민들의 활동 거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활동 거점을 점 단위로 보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 선과 선을 연결해
면 단위까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재생을 위한 숨 가쁜 일 년을 돌아보며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성현 센터장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 한해 제주도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부성현 센터장을 만나 숨 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 도시재생 사업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부성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이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및 상생모델 구축을 위해서 관계부처들과 협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임 후 1년간 많은 사업을 진행했다. 제주시 원도심의 가능성과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원도심은 탐라국 시대부터 현재까지 제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제주시에는 227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 중 원도심에 31개가 있을 정도로 제주의 역사가 축적된 보물 같은 장소다. 또 하나는 1914년 지적도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원상태가 보존된 옛길이 27개가 있다. 광해군 적소 터, 유배인 적거지 등 제주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산지천도 원도심에 있는데 청계천이 벤치마킹한 곳이 바로 산지천이다. 이처럼 원도심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요소가 매우 많은 곳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물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될 점도 많다. 공공시설 이전으로 침체된 경기, 생활 인프라 부족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부임 후,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했나? 주민들의 활동 거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활동 거점을 점 단위로 보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 선과 선을 연결해 면 단위까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제주북초등학교의 김영수도서관을 마을도서관으로 재개관 했으며, 옛 제주지방기상청 건물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간인 W360을 조성했고, 고씨주택을 주민들의 쉼터인 제주책방, 제주사랑방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해 오픈했다. 그중 김영수도서관은 전국 생활SOC 우수 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현재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분들을 포함해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주민, 학교 관계자 분들 모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센터와 현장센터를 겸하고 있다. 광역센터와 현장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광역센터는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조직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을 사업을 위한 전국 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대학 같은 교육 사업,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자문,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 관리 등이 주요 업무다. 현장센터는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현장에서 지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속가능이라는 키워드가 따라 붙는다. 2020년 제주시 원도심 마중물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들었다. 사업의 마무리와 그 이후에 계획이 궁금하다. 마중물 사업은 말 그대로 물꼬를 트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 되었다고 가시적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센터는 마중물 사업을 통해 도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예정이다.

2020

원도심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요소가
매우 많은 곳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센터는 마중물 사업을 통해 도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예정이다.

2019

슬기로운 인턴생활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청년들의 산업현장 업무 체험과 직무교육 및 도시재생 직무역량 강화, 도시재생 분야의 취 · 창업을 위해 인턴십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총 4명의 인턴이 선발되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재기발랄한 4명의 청년들의 짧지만 값진 경험이 된 인턴생활의 소감을 들어보자.

강민주

2019년 LH 도시재생뉴딜
청년 인턴십

도시재생의 가치를 알게 된 시간

도시재생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약 5개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도시재생의 가치, 중요성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시 원도심 숙박시설 실태조사를 직접 기획, 계획,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부족한 관심이 아쉬웠다. 내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주민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공유 등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소통팀
주요업무
- 공유공간(제주책방) 운영지원
- 홍보업무(SNS콘텐츠 수집 및 게시물 등록, 소식지 배포, 홈페이지 관리)
- 소통팀 업무지원
- 원도심 숙박업체 실태조사 진행 및 소책자 발간

도시재생, 현장에서 배우다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광역과 현장을 함께 겸하고 있는 제주도 도시재생센터 특성 덕분에 다양한 사업기획과 교육사업을 경험할 수 있었다. 김영수도서관, 혁신창업거점 W360, 광해군 콘텐츠 등의 사업지원을 통해 많은 기관과 협업을 하며 작은 움직임들이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느꼈다.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의 기획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방향성에서 기획을 점검하고 운영에 대해 짚어봐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지만, '목표'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고 그에 대한 방향을 잘 점검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도시재생이라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조금씩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재생이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직접 참여하고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임유영

2019년
LH 도시재생뉴딜
청년 인턴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 · 교육팀
주요업무
- 공공건축 전문가교육 지원
- 모니터링 성과지표 DB화
- 광해군 콘텐츠사업 참여
- 김영수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Why를 고민했던 값진 경험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전 직장이나 정부부처의 경험이 직무를 수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원도심 내 숙박업체 실태조사'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민관이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사회의 문이 많이 닫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웃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역 사회에 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져온 것 같다. 기획부터 발행물 제작까지 한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고 공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
센터 개소 4년차인 2020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차별화된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조직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기대한다.

전재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년센터
일성장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소통팀
주요업무
- 공유공간(제주책방) 운영 지원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SNS콘텐츠 제작 및 SNS마케팅 운영지원
- 김영수도서관 블로그 운영 지원
- 원도심 숙박업체 실태조사 진행 및 소책자 발간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촬영 지원 등

지혜원

2019년 LH 도시재생뉴딜
청년 인턴십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을 알아가다

대학 생활 중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주민들의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계기로 청년인턴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팀장님, 연구원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분들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집 안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인테리어 DIY사업은 주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낡은 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모습에서 이곳을 사랑하시는 주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기다림'이 아닐까.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기다려주고, 센터가 주민과 소통하며 도시 활성화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면 사업 종료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 · 디자인팀
주요업무
- 주거환경개선 • 빌더 양성 교육 • 디자인공장
- 자유형건물번호판 • 도민디자인교실 • 사회적경제지원

도시재생
상생마당
기획전시

이음

CONN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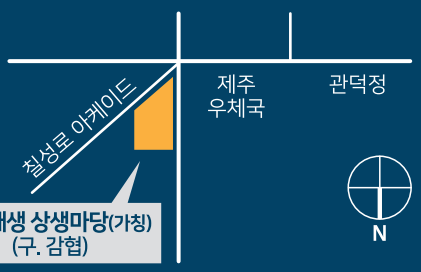
12. 24-
02. 29

초대의 글

쇠퇴해가는 제주시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원도심내에서 주민활동을 비롯해 돌봄과 청소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상생마당(가칭)이 준공되어 공간을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입주식과 기획전시를 마련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시
2019. 12. 24.(화) ~ 2020. 2. 29(토), 10:00 - 17:00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 1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 727. 0617 | jejuregen.org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JEJU URBAN REGENERATION CENTER